

# 광주시민 안전 지키는 1만개의 눈 'CCTV 통합관제센터'

### 개소 10년만에 2977대서 올해 1만69대 운영...방범·재난 대응 범인 검거 735건, 사건사고·응급환자 대응 등 5161건 '성공'

광주시가 통합 운영하고 있는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 (이하 통합관제센터)가 범죄 예방 등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2013년 5월 광역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개소돼 올해로 10년째 운영중이다. 개소 당시 센터에서 운영하는 CCTV는 2977대였다.

주로 방범용과 어린이 보호용, 재난 대응 등을 목적으로 설치됐다. 이후 ▲2016년 4007대 ▲2018

년 5080대 ▲2019년 6552대 ▲2021년 8815대 ▲2022년 9773대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는 1만69대가 됐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운영 목적이 다양해지면서 CCTV 대수는 10년새 3배 이상 늘었다.

광주시내 전 지역에 CCTV가 크게 늘면서 시민 안전 서비스도 다양해졌다.

기존에는 CCTV를 활용해 화재·구조상황을 파악해 119 긴급출동을 지원하거나 납차·강도 등 사

건이 접수되면 신속히 현장을 파악해 112에 긴급영상 지원을 하는 등의 방범 서비스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지난 2018년 광주시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선정되면서 ▲112 긴급영상 지원서비스 ▲경찰관 긴급출동 지원서비스 ▲119긴급 출동 지원서비스 ▲재난상황 긴급 대응 지원서비스 ▲사회적 약자 지원서비스 등이 가능해졌다.

2019년 이후에는 아동·치매환자의 위급한 상황을 지원하고 전자발찌 위반자 검거, 긴급 수배차량 및 통과차량 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89명의 관제원이 365일 모든 지역을 관제하고 있으며, 지방경찰청 등과 원스톱 협력체계를

구축해 그동안 범인 검거 735건, 각종 사건 사고 응급환자, 음주·노숙자 등 예방활동 5161건의 성과를 거뒀다.

최근에도 경찰로부터 금은방에 유리문을 부수고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절도범들의 모니터 링 요청을 받고, 사건 현장 일대를 집중 관제해 인상착의와 이동방향을 경찰에 알려 사건 발생 30분 만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또한, 도주하는 마약투약 용의자의 동선 등을 파악해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범인 검거에도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에도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CCTV 127대 설치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173대 연계 ▲중복 CCTV 119대 이전·재배치 ▲

비상벨 153대 설치 ▲노후 CCTV 320대 교체 등을 추진한다.

특히 위험상황을 스스로 감지해 알려주는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 확충 사업'을 12월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CCTV에 지능형 영상관계 서버와 라이선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군중밀집 ▲지하차도 수위 ▲화재 등 위험상황 발생 때 신속한 대응과 관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각 자치구에서 설치한 126곳 386대의 광주시 투자산단과에서 운영해온 50대의 CCTV를 올해 말까지 모두 통합관제센터로 이관, 광주시에서 통합 관제·관리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영록 지사, 전국체전 하키 선수단 격려  
김영록 전남지사가 3일 오후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전남선수단의 사기 진작을 위해 목포하키경기장을 방문, 하키 선수단을 격려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광주 경제 이끌 명품강소기업 37개사 발굴

### 시, 이달 27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지역기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성장 잠재력과 의지가 높은 지역 유망중소기업 80여개사를 발굴·선정해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집중 지원하는 지역기업 지원사업이다.

모집대상은 공고일(9월 26일) 현재 본사와 주사업장이 광주에 위치한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 산업 기업으로 총 37개사다. 이번 모집은 앞서 명

품강소기업의 지정기간(3년)이 만료되는 기업의 연장 여부와 연장 포기·탈락·졸업한 기업에 대한 결원분을 채우기 위해 추진됐다.

선정조건은 매출액 50억원 이상(지식서비스산업은 10억원이상)이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5%이상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1%이상인 기업이다.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육성부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현장평가를 거쳐 12월중 선정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 전남도, 동계작물 재해보험료 90% 지원

### 오늘부터 8개 품목 순차 접수

전남도가 이상저온과 호우 등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해 동계작물 농사를 안정적으로 짓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섰다. 10월 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동계작물은 8개 품목이며, 지역 농·축협이나 품목농협을 통해 이뤄진다. 가입 기간은 ▲마늘 10월 4일~27일 ▲차·시금치 10월 4~11월 3일 ▲보라·귀리·밀 10월 10~12월 1일 ▲

양파 10월 23~11월 24일 ▲인삼 10월 30~11월 24일이다.

가입 농가는 보험료의 90%가 지원되므로 1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언제 발생할 지 모를 재해로부터 농가 경영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마늘, 양파 등 8개 품목을 재배하는 4505농가가 4390ha를 보험에 가입, 올해 3~4월 저온 피해 등을 입어 보험금 112억원을 지급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배우자" 줄이는 벤치마킹

### 평일 평균 37명·주말 117명 이용...지자체 7곳 성과 공유

광주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이 운영 한 달 만에 '소아청소년 공공의료 모델'로 떠오르면서, 전국 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기독병원과 함께 평일과 휴일 모두 자정까지 문을 여는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을 지난달 1일부터 운영했다.

그동안 광주에서는 늦은 밤, 휴일에 운영하는 어린이 병원이 없어 아이가 아프면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장시간 대기과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 때문에 소아과 진료를 받으려고 새벽부터 줄을 서는 '오른 편' 현상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심야 어린이병원은 개원 한 달 만에 평일 평균 37명, 주말과 휴일 평균 117명 환자가 이용할 정도로 심야 시간대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 지키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영향을 받은 다른 병원들이 소아청소년과 야간 진료에 동참하고 심야약국 운영 등의 효과도 생겼다.

광주시는 운영 협약을 체결한 기독병원에 2025년까지 2년 4개월 동안 29억원을 지원한다. 대부분은 야간 진료에 투입되는 의료진 인건비 보조 비용이다.

심야 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전국 45개 달빛 어린이병원이 주말과 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진료하는 것과 달리 '365일 자정까지' 원칙을 고수한다.

운영 한 달도 되지 않아 지자체 7곳에서 방문이나 전화 문의로 성과를 공유할 만큼 벤치마킹도 활발하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강기정 광주지사는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소아 전문 응급 의료센터 설치, 병원 간 협력 지원 등 소아 의료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관광공사 초대 사장에 김진강 씨 선임

광주관광공사 초대 사장에 김진강(사진) 전 광주관광재단 대표이사가 임명됐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김진강 선임 사장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시의회 인사청문회 등의 검증을 거쳐 지난달 26일부터 3년간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김 사장은 호남대 호텔경영학과 교수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이사, (재)광주관광재단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지역 관광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활동과 현장실무 경험이 풍부한 점이 장점이며, 관광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는 평가

를 받고 있다.

김진강 선임 사장은 "관광공사의 초대 사장으로써 조직문화를 우선적 임무로 생각한다"며 "관광공사를 직원들이 일할 맛 나는 직장으로 탈바꿈하고 모든 임직원과 한마음으로 시민에게 사랑 받고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기업부 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법인서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태림인더스트리(주) [Homepage : http://www.taeri.co.kr](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